



무주군 안성정수장 이전 확장

공정이 일대로 하루 3,500 톤 처리 상수도 보급률 95%로 향상 전망

무주군은 안성정수장을 공정리 일원(표고 534m의 고지대)으로 이전 확장한다고 밝혔다.

지방상수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시설 규모는 하루 3,500톤이다.

이 규모는 안성면은 물론, 인근의 적상면과 부남면 그리고 무주읍 일부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으로, 현재 75%에 달하는 상수도 보급률을 최대 95%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가압장(8개 소)을 따로 가동하지 않고도 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어 운영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그간 환경부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과 전라북도의 개발사업 인가 그리고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협의 등 사업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아왔으며 7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2018년 준공할 예정이다.

무주시설사업소 상수도 담당 최성용은 "기존 정수장은 1989년 처음 설치

될 당시 1,000톤/일 규모였다가 1995년에 2,000톤/일로 확장했다"며 "하지만 시설부지가 협소하고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데다 노후까지 돼서 급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시설을 이전·확장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성과 설천, 적상 부남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150억 원의 투입해 상수관로 확장공사도 병행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박성일 완주군수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북 국회의원 만나 화산-운주간 국도17호선 개량 등 국비 요청

2017년도 국가예산 편성 단계 중 현재 기획재정부 1차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완주군이 국회를 방문해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난 20일 국회를 방문해 안호영·정운천 전북 지역 국회의원 등을 연달아 만나며 강행군을 펼쳤다.

이날 국회방문을 통해 화산-운주간 국도17호선 개량사업(국비118억),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국비185억), 완

주 내수면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35억)에 대한 국비확보를 요청했다. 위 사업들은 군민들의 교통편의, 문화관광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사업들로 기재부 예산변경과 완주군 사업신청을 위한 노력과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정운천 국회의원은 산업위·예결위에 소속되어있고 안호영 국회의원은 국토위 소속으로 완주군 핵심사업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날 만남을 통해 완주군의 핵심

사업 확보 노력을 비롯해 군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가예산 확보 대응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천원 중앙부처 일제출장과 중앙부처 항우익단체, 국회의원 정책자담회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국회의원, 중앙부처 핵심 항우, 기획재정부를 수시 방문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기자

진안군, 인삼 재배 농가 전용 차광비닐 지원

진안군은 하우스 인삼 재배 농가에 전용 비닐을 지원해 친환경 인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전용 차광비닐 교체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투자하여 5,610㎡를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생육이 우수해 고품질 인삼생산이 예상된다.

전용 차광 비닐은 결면은 흰색으로 햇빛을 반사하여 하우스 내 온도를

낮추어 고온장해를 억제시키고, 인쪽면의 청색은 인삼의 생육을 촉진하여 수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특허출원 제품이다.

하우스 인삼 재배는 전용 차광비닐과 무인방제시스템을 도입하여 병해충을 억제하고, 농약사용과 노동력을 줄이며,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재배방법이다. 도 농업기술원 시험결과를 보

면 전용비닐을 사용한 하우스 재배는 기존 방식에 비해 고온장해가 99% 감소하고 생산성은 47% 향상되며, 설치비용도 58%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하우스 인삼재배법은 고품질의 인삼 생산이 가능한 만큼 국비 확보를 통한 면적 확대와 기존 내재해형 하우스를 활용한 하우스 인삼 재배 전환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보건의료원 비만 클리닉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비만클리닉 교실을 운영한다.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비만클리닉 1기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30일까지 1대1 비만클리닉 2기 참가자를 선발한다.

선정기준은 체질량지수(BMI)가 25 이상인 자, 체지방률 남성 25% 여성 28% 이상인 자, 복부지방을 남성 0.90 여성 0.85 이상인 자, 전체적으로 기초체력이 미달인 자다.

비만클리닉 프로그램은 오는 7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의료원 구관 3층 체력단련실에서 운영되며 프

로그램 참가자는 개인별 기초의학적사와 체성분, 기초체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운동처방사와 퍼스널 트레이너, 영양사로부터 일대일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트레이닝과 영양식단표를 제공받게 된다. 개인별 맞춤형의 식이요법에서부터 운동프로그램, 사후평가를 통한 꾸준한 비만 관리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비만은 성인병과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조기 관리가 중요하다"며 "전문화된 비만관리를 통해 비만인구를 감소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수명연장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완주군 별밤문화콘서트 성료

완주군이 품격있고 수준높은 별밤문화콘서트를 개최하여 삶에 지친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다.

22일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따르면, 완주군근로자종합복지관 체육관에서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과 인기가수 조항조 공연 등 색다른 문화콘서트를 성황리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공연은 전북 경제의 중심지인 완주산업의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더 큰 감동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은 앞으로도 9월 별밤 콘서트와 11월 근로자와 주민 노래자랑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기자

무주군 수도권 귀농학교 개최

무주군은 수도권 귀농학교(1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무주군 귀농협회(회장 김규생)가 함께 하는 이번 귀농학교는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체험 교육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교육생들은 22일 안성면 반디농장과 머루와인 동굴을 견학했으며 설천면 호룡불마애에서 무주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무주군 마을만들기 사업소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이 강의한 "농촌일자리"와 호룡불마애 박희숙 대표가 진행한 "농촌문화의 이해"에 관한 교육을 들었다.

23일은 설천면 백운농장과 애플파크를 견학하며 무주군의 농업농촌 현실을 살펴보고 귀농에 정착해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와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에서 온 김 모씨(51세, 송파구)는 "무주군 귀농학교를 통해 귀농의 꿈을 현실화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왕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에서 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제

의 인생을 준비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전략적 집중을 하고 있는 무주군은 '청년 농업 창업 지원'을 비롯해 '주택 및 농지정보 구축 사업', 신규 취업농가에 농지를 공급하기 위한 '신규 취업농가지원 농지매입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예산과 '집들이 비용 지원 사업' 예산을 군비로 추가 확대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마을만들기 사업소 농촌협력 담당 배점숙은 "무주군의 귀농귀촌인구는 2014년 44가구, 2015년 59가구, 2016년 5월 현재 277가구로 지난 3년 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군은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를 힘쓰는 한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진안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홍보

진안군은 최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와 신고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미신고·지연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

로 꼭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매수·매도인이 이에 관해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신고 의무자는 중개업자가 되어 반드시 중개업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자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방문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trms.md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21일 지역사회와 합동으로 구천동 환경정화활동을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지역합동 환경정화활동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지난 21일, 여름성수기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와 합동으로 구천동 계곡 수물 쓰레기 및 계곡주변 숨겨진 쓰레기 수거 등 환경정화활동을 이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를 비롯한 국립공원 자원활동가, 실천단, 구천동과출소, 구천동관광연합회, 적십자회, 구천동청년회, 덕유산민간간선약구조대, 구천동자율방범대, 무주덕유산리조트, 공향엔지니어링 등 지역주민 전체가 무주구천동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동체적 협력관계를 통하여 합동으로 실시되었다.

/무주=전문선기자

이번 활동은 계곡의 수물 쓰레기 및 계곡주변 숨겨진 쓰레기 등을 발굴 수거하고 평소 수거하기 어려운 임벽구간 등 위험지역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활동을 벌여 약 500kg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국립공원 그린포인트제도 활성화 등 깨끗한 국립공원 만들기 결의 행사도 곁했다.

한편, 자원보전과장 홍성열은 "지역주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으로 무주구천동계곡 등 덕유산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상생 협력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선진적인 공원관리를 실천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국립공원관리소

진안군 식중독 처리반 운영

진안군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예방을 위해 종합대응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사전 예방 관리대책을 강화하는 등 식중독 상황 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하절기를 맞아 일반음식점 영업주 및 종업원과 집단급식소 영양사·조리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교육은 물론, 물품·식품물 제공 지도를 하고 식중독 예방 3원칙과 안전한 조리를 위한 10대 원칙을 교육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유통식품 등 먹거리 50건을 수거·검사하는 등 행사장과 터미널, 진안시장에서 하절기 식품 안전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식중독균 배양기'를 구입하여 주방 청결과 식중독 예방에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

박현숙 위생담당은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와 함께 지도 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친절한接客소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장수군 어린이 대상 인형극 공연

장수군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장수한누리점당 소공연장에서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을 실시했다.

이날 지역내 어린이집 영유아 250여명은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를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인형극 '파이도둑을 막아라'는 매일 파이를 훔쳐가는 늑대를 막기 위해 동물친구들이 협동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이 중 늑대를 많이 읽어 지혜로운 토끼의 피로 결국 파이를 지키게 되면서 독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형극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게임이나 텔레비전 보다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갖길 바란다"며 "아이들의 정서함양과 창의적 상상력 증진을 위한 재미있고 교육적인 문화예술공연을 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국유임도 풀베기 기계화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년도 국유임도 유지·관리 대상 거리 157.36km 중 77.93km는 관내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맡기고, 나머지 79.43km는 직영으로 풀베기 등 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부터 관리소에서 직접 정비하는 국유임도에는 트랙터 부착형 예취기(GRAFFA-210)를 투입하여 풀베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부속한 노동력 및 높은 노무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기자

장수경찰 지공합동 FTX훈련 실시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에서는 21일 오후 여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청과 합동으로 FTX를 실시하였다.

이번 FTX 훈련은 여성범죄 등 민생 침해범죄 가정·학교폭력 등 4대 분야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 필요성 부각과 112신고 접수·지령 단계부터 체포·호송 등 전 과정에 대한 현장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공합동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날 윤중섭 서장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강력범죄예방에 힘쓰고 112신고는 전 경찰의 적극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기자